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 바꾸고 싶어요”

글 채승웅 작가 / 사진 전호성 노브스튜디오



2003년 결혼한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은 그녀에게 중국어를 배우던 학생이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다. ‘다문화 여성’ 혹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여러 차별과 편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 자격을 취득했으면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이주여성들.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이주여성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왕지연(40) 씨다. 그녀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하겠다”

왕지연 씨는 1975년 중국 청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기업에 다녔고, 어머니는 해산물 판매상점을 운영해 비교적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청도58고등학교 재학 당시 그녀의 꿈은 음악가였다. 피아노 레슨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음악대학에 진학해 피아노를 전공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고 말았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에는 부도가 났죠. 음대 진학을 포기하고 청도라디오방송대학에서 경제관리를 전공하다가 자퇴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 데다 동생까지 아픈 상황이라 공부를 계속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인 한영전자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맡았다.

“회사에는 매년 현장직원들을 한국 본사에 보내 일을 배우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현장직원이 아니어서 갈 수 없었죠. 한국에 무척 가고 싶어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남짓 한국어를 독학한 그녀는 한국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만큼 실력이 늘었다. 워낙 꼼꼼하게 일을 하는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대단한 신임을 얻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의 중요한 자재인 카퍼와이어(동선)가 매일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하는 관행 때문인지 감사팀에 조사해 달라고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큰일이라 ‘조사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감사팀 조사로 회사 경비직원이 카퍼와이어를 조금씩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 3월 문을 연 학원 앞에서. 이 학원은 그녀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이주여성연합회에서 운영한다

사건을 해결한 뒤 그녀는 회사의 특별배려로 1998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그녀는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훗날 꼭 한국에 돌아와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한영전자에서 일하다가 2001년 또 다른 한국계 전자회사인 미노와로 스카우트 돼 무역과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같은 부서의 한국 직원들 중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로 대화해야 했는데 뜻이 통하지 않을 때마다 한국어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죠. 2001년이 끝나갈 때쯤 한국의 여러 대학교 어학당에 신청서를 냈고,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와 어학당에 다닐 때 가장 큰 걱정은 학비와 생활비였다. 그녀는 한국 직장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며 학비를 해결했다.

“청도에서 일할 때 잠깐 도움을 준 한국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중국어 과외를 받고 싶어 하는 직장동료들을 소개시켜주어서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입학예를 준비하던 2003년, 그녀는 평생의 인연을 만난다.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남편(57)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200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이듬해에는 큰아들(11·초등학교 5)을, 2007년에는 작은아들(9·초등학교 3)을 출산했다.



왕지연(오른쪽) 씨가 이주여성유권자연맹 회원들과 서울 명동에서 6·4 지방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위). 한국이주여성연합회는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아래)

“아이들을 낳은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싶었지만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인 그녀가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한 것은 중국어를 더욱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첫 학기를 제외하고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을 정도의 우수한 성적으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고, 2012년부터는 숙명여대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2009년 4월 열린 ‘다문화 가족관계 향상캠프’에 참여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그녀였기에 이 캠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녀를 지켜보던 행사 담당자가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캠프를 주최한 단체는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이었습니다. 마침 상담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제안했죠. 6월부터 한

국청소년보호연맹에서 후배 이주여성들의 멘토로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주여성들과 통화하고 만나면서 이주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16개국 이주여성 67명이 모여 친목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사회활동에 목말라하던 이주여성들은 모임이 열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모임이 열리면 자신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이주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비단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편견, 차별 등 아이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들이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봉사를 다니거나 공연을 하는 등 여러 사회활동을 기획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는 등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죠. 2010년 8월부터는 ‘이주여성연합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회장인 그녀와 함께 부회장과 사무국장이 돈을 모아 서울 개봉동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름도 ‘한국이주여성연합회’로 바꿨다. 그녀는 연합회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일도 그만두었다.

이주여성에게 절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처음에는 중국 출신 엄마들이 모여 공연 팀을 꾸렸습니다. 엄마들끼리 아는 대로 안무를 짜고 공원이나 다리 밑에서 연습했죠. 그야말로 아마추어였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전통춤과 악기연주, 뮤지컬까지 포함된 1시간30분짜리 공연이 됐습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되었죠.”

그녀와 회원들의 노력으로 한국이주여성연합회는 2012년 8월, 다문화관련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됐다. 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사업단 ‘한사랑’이 2013년 5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3월에는 서울 천왕동에 ‘왕지연 중국어학원’을 열었다. 이름만 보면 그녀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학원 또한 한국이주여성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 학원의 특징은 수강료가 다른 외국어학원에 비해 무척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주여성들이 강사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공연 사업과 외국어학원 운영에 힘을 쏟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주여성들 고향의 전통문화와 언어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부부는 보통 열 살 이상 나이가 차가 납니다. 10~20년 후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무렵인데 아빠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겠죠.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엄마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취미,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정부는 이주여성에게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이주여성유권자연맹을 결성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지방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주위에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할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이주여성연합회 회장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으며 사양했다. 지금은 이주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임기를 마친 상태다.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녀는 2013년 보건복지부 행복나눔인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아산상 다문화가정상을 받았다. 한국에 와서 화목한 가정을 일구었고, 이주여성들을 위한 일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주위에서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아산상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도 있었고 지금도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줬거든요. 또 아산상을 받은 후 저희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웃음).”

몇 년째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일에 매진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남편은 가끔씩 불만이 섞인 말을 그녀에게 건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



그녀와 이주여성연합회 회원들은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으로서 그녀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새로운 사업 구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나라의 음식을 모아 만든 뷔페식당, 영어와 중국어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기관 등 듣기만 해도 참신한 아이디어들이다.

“성격이 조금 다른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것은 국제결혼 사전 교육 사업이에요. 한국 남자와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외국 여성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국제결혼한 선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싫어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다문화’를 대신할 단어를 찾기도 했지만 다른 말로 바꾸더라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일 터였다.

“가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우리 행사에 봉사하러 와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TV에서 보던 이주여성들의 이미지는 가난하고 우울한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우리 회원들을 보니까 그렇게 쾌활할 수가 없거든요. 다문화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저와 우리 회원들의 일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녀의 가족을 보며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걸 보니 어디선가 가을이 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